

‘눈 뜬’ 아기호랑이 ‘삼진왕’은 잊어라



KIA 황대인 선구안 좋아져... 맹활약 기대

‘눈을 뜬’ KIA의 차세대 거포 황대인이 파워 과시에 나선다.

내야수 황대인은 지난해 많은 관심 속에 KIA 유니폼을 입은 고졸 2년차 선수다. 타고난 힘과 거침없는 스윙으로 고교 무대를 평정했던 그는 강한 어깨를 바탕으로 140km 중반대의 공을 던지기도 하던 ‘대어’였다.

그러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루키 시즌이었다. 처음에는 수비가 문제였다. 송구 동작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전전긍긍해야 했다. 뒤늦게 7월26일 롯데와의 경기를 통해서 프로 데뷔전을 치른 황대인은 이날 세 타석 만에 프로에서의 첫 안타를 신고했고, 자신의 두 번째 경기에서는 SK의 ‘괴물’ 김광현을 상대로 멀티히트를 기록하는 등 3안타를 몰아치며 실력 발휘를 했다. 두 개의 홈런도 터트렸다.

하지만 시즌이 진행될수록 극명한 약점을 노출했다. 지난해 22경기에 나온 황대인은 44타석에 단 하나의 볼넷도 골라내지 못했다. 반면 삼진은 18차례나 당했다. 페기 넘치는 스윙과 파워로 눈길을 끌었던 황대인은 이내 노련한 상대 배터리의 수싸움에서 밀리며 허무한 헛스윙 삼진을 쌓아갔다.

김기태 감독은 타이거즈의 중심타자로 키우기 위해, 멀리 보면서 황대인의 상무 군입대를 준비시켰다. 황대인도 일찍 군복무를 끝내고 돌아오겠노라며 작별을 준비했지만 아쉽게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는 못했다. 결국 황대인은 KIA에서 프로 두 번째 시즌을 보내게 됐다.

황대인은 자신의 두 번째 스프링 캠프

에서 한결 안정된 수비 실력을 발휘했다. 그렇지만 이번 캠프에서도 ‘삼진왕’의 오명을 벗지 못했다. 선부른 스윙이 계속되자 김 감독은 스프링 캠프 막바지 “한 번만 더 삼진을 당하면 당장 한국행 비행기에 태우겠다”는 엄포를 놓기도 했다.

다행히 조기 귀국의 위기는 넘겼지만 총출출해진 내야 전력 탓에 황대인에게 기회가 바로 돌아오지는 않았다.

황대인은 퓨처스리그에서 약점 극복에 나섰다. 황대인은 올 시즌 퓨처스리그 26경기에서 79타석을 소화하면서 0.367의 타율을 기록했다. 2개의 홈런을 더해 17타점도 만들었다. 18차례 삼진을 더 돌아섰지만 23개의 볼넷을 골라내면서 퓨처스리그에서 김동명(26개·kt)에 이어 가장 많은 볼넷을 기록하기도 했다.

“지나해 볼넷을 하나도 얻지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침착하게 공을 고르고 있다”고 웃던 황대인은 지난 17일 마침내 김 감독의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두산과의 원정경기가 열린 이날 9회초 1사2루에서 2016시즌 첫 타석을 맞았다.

황대인은 2-4로 뒤지고 있던 상황에서 오준혁의 대타로 나와 이현승을 상대로 1타점 2루타를 터트렸다. 추가 득점 없이 경기가 3-4. KIA의 패로 끝나기는 했지만 황대인에게는 강렬한 시즌 출발이었다.

황대인은 성급한 스윙에 파워를 과시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눈이 좋아진 황대인이 기대에 걸맞은 활약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퓨처스리그 월요일 야간경기 후끈

23일 챔피언스필드서 KIA-경찰청 격돌

퓨처스리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한 ‘먼데이 나이트 베이스볼’이 선수들과 야구 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16일부터 퓨처스리그 경기 중 1경기를 KBO 리그의 휴식일인 월요일 야간에 치르는 ‘먼데이 나이트 베이스볼’을 진행하고 있다.

한화 이글스의 퓨처스리그 구장인 서산 야구장에서 열린 한화와 화성 히어로즈의 경기가 시작되었다. 이날 300여 명의 관중이 직접 경기장을 찾았고, 3만여 명의 팬이 SPOTV와 포털사이트 다음과 네이버를 통해 생중계를 지켜본 것으로 집계됐다.

KBO리그 경기가 없는 월요일에 편성된데다, 오후 6시에 경기가 시작되면서 팬들이 직접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는 점에서 호응이 좋다.

선수들도 야간 경기를 반기는 분위기다. KBO리그 진입을 목표로 하는 퓨처스리그 선수들에게는 야간 경기가 큰 도움이 된다. 또 중계 화면을 통해 자신의 플레이를 복습할 수 있고, 팬들에게 자신을 어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KIA 퓨처스리그 선수단은 오는 23일 오후 6시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먼데이 나이트 베이스볼’을 치른다. 경찰청과의 경기가 예정되면서 안치홍, 이경록, 박준태, 박정수, 이종석 등 KIA 출신 선수들의 모습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이 경기의 입장료는 무료이며 SPOTV를 통해 생중계된다. 또 KBO 공식 어플리케이션과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을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올림픽까지 1승만 더!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이 18일 일본 도쿄 메트로폴리탄 체육관에서 열린 카자흐스탄과의 2016 리우 올림픽 세계 여자 예선 4차전에서 득점을 한 후 환호하고 있다.

<국제배구연맹 제공>

여자배구, 올림픽 세계 예선 4차전서 카자흐스탄 꺾고 3승 1패

페루·태국·도미니카공화국과 대결 남아... 4위권 진입 무난할 듯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이 카자흐스탄을 꺾고 리우 올림픽 본선에 한 발 더 다가갔다.

이정철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8일 일본 도쿄 메트로폴리탄 체육관에서 열린 2016 리우 올림픽 세계 여자 예선 4차전에서 카자흐스탄을 세트 스코어 3-0(25-16, 25-11, 25-21)으로 완파했다. 전날 속직 일본을 세트 스코어 3-1로 꺾은 상승세를 이어가며 올림픽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

한국을 포함해 8개국 이 참가한 이번 세계 예선에서는 아시아(한국, 일본, 카자흐스탄, 태국) 국가 중 1위를 하거나, 아시아 1위 팀을 제외한 상위 세 팀에 들어야 리우

올림픽 본선 티켓을 획득할 수 있다.

세계랭킹 9위인 한국은 앞서 이탈리아(8위), 네덜란드(14위), 일본(5위) 등 강팀을 줄줄이 상대해 2승 1패라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이탈리아에 1-3으로 패했지만 네덜란드를 3-0으로 이겨 반등 발판을 마련하고, 일본을 3-1로 제압하며 리우행 8부 능선을 넘었다. 세계 26위 카자흐스탄은 비교적 수월한 상대였다. 세계예선 3승 1패를 달린 한국은 이제 1승을 추가하면 전체 4위 안에 무난하게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은 상대는 페루(21위), 태국(13위), 도미니카공화국(7위)이다.

한국은 1세트 김연경(타키 페네르바체)의 선제공격으로 2-0으로 앞서나갔다. 양효진(현대건설)의 블로킹에 김희진(IBK기업은행)의 서브에이스로 18-11로 점수를 벌렸다. 양효진이 속공과 시간차로 20-13을 만든 이후에는 교체 투입 삼총사가 활약했다. 이소영(GS칼텍스)의 밀어 넣기 공격으로 23-15, 배유나(도로공사)는 세트포인트(24-15)를 잡았다. 이재영(흥국생명)은 강스파이크로 세트를 끝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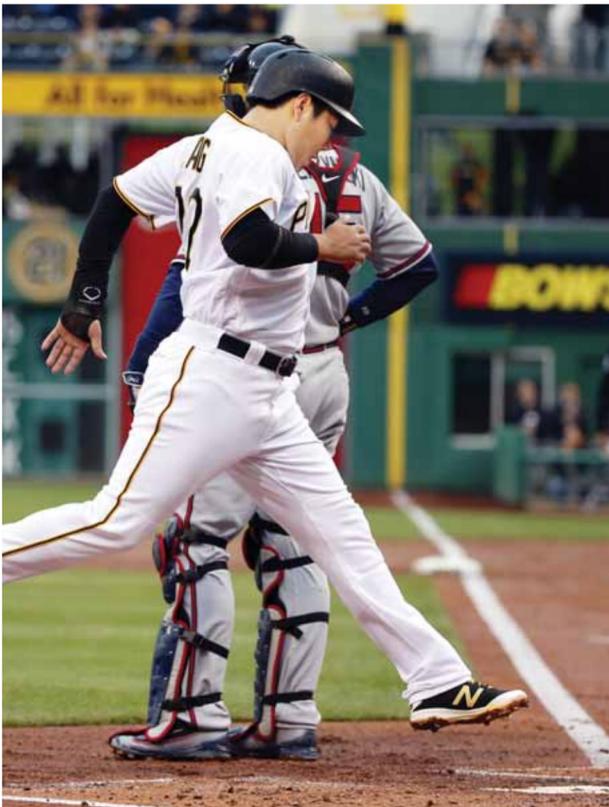
한국은 2세트에도 6-1로 기세를 이어나갔다. 이재영이 서브에이스로 16-6을 만들었고, 대표팀의 막내인 신인 강소휘는 교체 출전해 세트포인트(24-11)를 잡아내

는 공격포를 날렸다. 한국은 14점 차(25-11)로 낙담하게 2세트를 따냈다.

3세트에는 공·수 집중력이 다소 흐트러지는 등 5점 연속 점수를 내주며 12-11로 추격당했다. 한국은 16-13으로 테크니컬 타임아웃을 잡았지만, 18-18까지 허용했다. 김희진이 블로킹으로 분위기를 다잡았다. 이재영의 서브에이스와 박정아의 득점 포가 연달아 터지면서 한국은 22-18로 다시 달아났다. 박정아는 매치포인트(24-19)를 잡고, 네트를 슬쩍 넘기는 공격으로 경기를 끝냈다.

전날 25득점으로 승리를 이끌었던 대표 공격수 김연경은 이날 7득점으로 컨디션을 조절했다. 3세트에는 나오지 않았다. 대신 이재영(6득점), 양효진(7득점) 등이 득점을 골고루 책임졌다. 양효진은 블로킹 4개, 이재영은 서브에이스 3개를 추가하며 활약했다.

/연합뉴스



미국프로야구(MLB)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강정호가 17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열린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경기 1회에 홈으로 뛰어들며 득점에 성공하고 있다.

/연합뉴스

4번 타자, 244일만에 집으로

강정호, 올 첫 홈경기 4번타자 출전 1타점 1득점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가 2경기 연속 안타와 타점을 추가했다.

강정호는 18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PNC 파크에서 열린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전에 4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했다.

작년 9월 무릎을 다쳐 그라운드를 잠시 떠났던 강정호는 복귀 후 8경기 모두 방문 경기만 치르다 올해 처음으로 홈 경기에 나섰다.

강정호는 첫 타석부터 타점 기회를 잡았다. 0-0으로 맞선 1회말 1사 2·3루에서 첫 타석에 등장한 강정호는 3루수 앞 땅볼로 1타점을 신고했다. 올 시즌 9번째 타점이자, 이날 경기 결승타였다.

애틀랜타 3루수 고든 베컴은 1루 대신 홈에 송구했고, 강정호는 야수 선택으로 출루했다. 이후 강정호는 조시 해리스의 중견수 앞 안타 때 홈을 밟아 득점까지 올렸다. 피츠버그는 강정호의 타점을 시작으로 1회에만 7점을 내 기세를 확실히 제압했다. 2회말 무사 2루에서 두 번째 타석에 선 강정호는 투수 땅볼로 물러났다.

강정호의 안타는 세 번째 타석에서 나왔다. 9-3으로 앞선 4회말 선두타자로 나온 강정호는 버드 노리스의 시속 151km 직구를 밀어쳐 우익수 앞 안타를 때렸다.

강정호는 5회말 2사 2루에서 타석에 등장

했지만 헛스윙 삼진을 당했다. 마지막 타석이 된 7회말 2사 2루에서는 내야 땅볼로 물러났다. 5타수 1안타를 기록한 강정호의 타율은 0.276(29타수 8안타)으로 떨어졌다.

피츠버그는 난타전을 벌인 끝에 애틀랜타에 12-9로 승리해 21승 17패,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2위를 지켰다. 애틀랜타는 이날 경기에서 앞서 프레디 곤살레스 감독을 경질했지만, 또 한 번 패배해 9승 29패로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최하위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오승환 1이닝 K·K·K

오승환(34·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1이닝 3K의 완벽한 투구를 선보였다.

오승환은 18일 콜로라도 로키스의 메이저리그 홈 경기에서 1-3으로 끌려가던 8회초 등판해 로키스의 5-7번 타자를 상대했다. 오승환은 1B-2S에서 첫 타자 마스 레이놀즈를 시속 약 148km(92마일) 포심 패스트볼로 헛스윙 삼진을 잡아냈다. 다음 타자 헤라르도 피라는 ‘3구 삼진’으로 돌려보냈다. 이어 타석에 들어선 DJ 르메이유에게는 1B-2S 상황을 만든 뒤 역시 시속 148km 포심으로 헛스윙 삼진을 잡는 등 11개의 공으로 한 이닝을 끝냈다.

/연합뉴스